

투데이 칼럼

지언(知言)의 스피치 이해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언(知言)'은 상대의 감춰진 생각과 욕망을 속속들이 읽어내는 판단력이다. 알척이 공자와 맹자는 사람공부, 세상공부의 요체로 '지언'을 꼽았다. 공자는 '말을 알지 못하면 사탐을 알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맹자는 자신의 감점을 '지언'을 꼽는다. 공자와 맹자는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찾는 연대를 마흔으로 잡는데서 일치한다. 공자는 마흔에 불혹(不惑, 주변 유혹에 흔들리지 않음), 맹자는 마흔에 부동심(不動心, 마음이 흔들리지 않음)하게 됐다고 고백한다.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분명해졌다는 이야기다. 지언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상대가 어떤 사람이나 못지않게 내가 불혹과 부동심의 올바른 잣대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공자라고 처음부터 사람 보는 데 눈 밝고 귀 밝은 것은 아니었다. 구변(口辯) 좋은 제자 '제아'



김 양 옥
전주교대 평생교육원 교수

에게 혹했다가 뽀롱 뽀롱고선 "내가 예전에는 사람을 볼 때 말만 듣고도 믿었는데 이제 그 말을 들으면 실제 행동까지 대조해 보고셔야 그 사람을 믿게 되었다. 모두 '제아' 덕분에 바뀐 것이 다'라고 토로하였다. 맹자는 지언의 4가지 포인트를 제시하였다. "치우친 말을 들으면 어느 부분이 가려졌는지를, 과장된 말(淫辭)을 들으면 어느 부분에 빠져 들었는지를, 거짓말(邪辭)을 들으면 어느 부분이 공색한 지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사(詞)가 표면적 단어라면 사(辭)는 내면적 의도와 복잡한 맥락까지 담아내는 말로서 구별

된다. 맹자의 지언을 질문으로 바꿔 보면 첫째, 논점이 편파적이지 않는가? 둘째, 사실을 과장 왜곡하지 않는가? 셋째, 정도에서 벗어난 거짓말을 하지 않는가? 넷째, 곤경에 처할 때마다 오락가락 말을 바뀌지 않는가 이다. 맹자는 '이 같은 판단근거는 상인이 다시 나와도 동의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한다. 흔히 '언어는 생각을 표현한다'고 하지만 '마음을 감추는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이때 상대의 감춰진 생각과 욕망을 속속들이 읽어내는 판단력이 바로 '지언'이다. 지언은 사람의 욕구를 찾아내어 상대가 원하는 말, 관계있는

말, 상대가 원하는 비전 있는 말을 잘 하는 것이다. 욕구를 알기 위해서는 첫째, 과거 나는 대화로 둘째, 자주 언급한 말에서 핵심을 찾고 셋째, 질문을 하면 알 수 있고 넷째, 상대의 이미지 분석하고 다섯째, 상대의 말에 잘 경청하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언어는 마음을 표현하지만 마음을 감추는 수단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거짓말, 허언을 꿰뚫지 못하면 상대의 진정한 마음을 알 수 없다. 세상 살아가면서 큰 아픔이 '뒤통수를 맞는 것'이라고 한다.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달콤한 말에 당해서는 안 되고 순간순간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 스피치 종류의 일부인 지언을 잘 사용하여 올바른 판단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자.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고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고 인생으로 태어나서 표현의 종합적인 스피치기법 터득하여 살맛나는 삶,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람되고 행복한 삶이다.

독자재언

술자리 NO-CAR, 음주운전은 불행의 씨앗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각종 모임과 회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자리를 가지다 보면 술을 마시게 되고 운전대를 잡게 되는 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인식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며, 적발 시 면허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몸에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려면 소주 1잔에 1시간 정도 소요되고, 소주 1병은 7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음주운전에 안전한 거리는 없으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이 중요할 것이다.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위험한 생각은 본인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 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는 무조건 차를 가지고 가지 않는 습관이 필요하며,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지고 갔다면 대리운전이나 택시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음주운전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고 나와 내 가족이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도,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 연말연시 평온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가족의 화합을 위해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아서 안 된다.

유서준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승리 기쁨 만끽하는 오르시 대선 후보



우루과이 중도좌파 '광역전선'(FA)의 아만두 오르시(오른쪽) 대선 후보가 24일(현지 시간) 대선 결선 투표에서 승리한 후 몬테비데오 선거 본부에서 카를리나 코세 부통령 후보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다. 포옹하고 있다. 오르시 후보가 당선되면서 우루과이는 5년 만에 중도좌파가 집권하게 됐다.

사설

제2회 전주 천아트 꽃이야기 회원전

제2회 전주 천아트 꽃이야기 회원전이 지난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북예술회관 2층 차옴 1실에서 열렸다. 회원전은 한국천아트예술협회 전주지부가 주최와 주관으로 맡아 하고 한국천아트예술협회가 후원을 했다. 이번 회원전은 한국천아트예술협회 전주지부 회원들의 두 번째 작품전이다. 작가 회원은 김오순 '교향의 추억', 김용숙 '행복', 김형일 '어머니의 사랑', 신명진 '러블리 버터플라이', 위아름 '여름의 희망', 조혜경 '해바라기 축제', 한은희 '유혹' 등 7명이다. 작가 회원 7명은 모두 한국천아트예술협회 천아트 지도사 1급 강사들이다. 그리고 작가 대부분이 각종 미술 관련 전국 대회에서 특선과 입선을 다수 차지하면서 실력을 인정 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천아트예술협회 전주지부장을 맡고 있는 유서영 지도교수는 작품 '기쁜 소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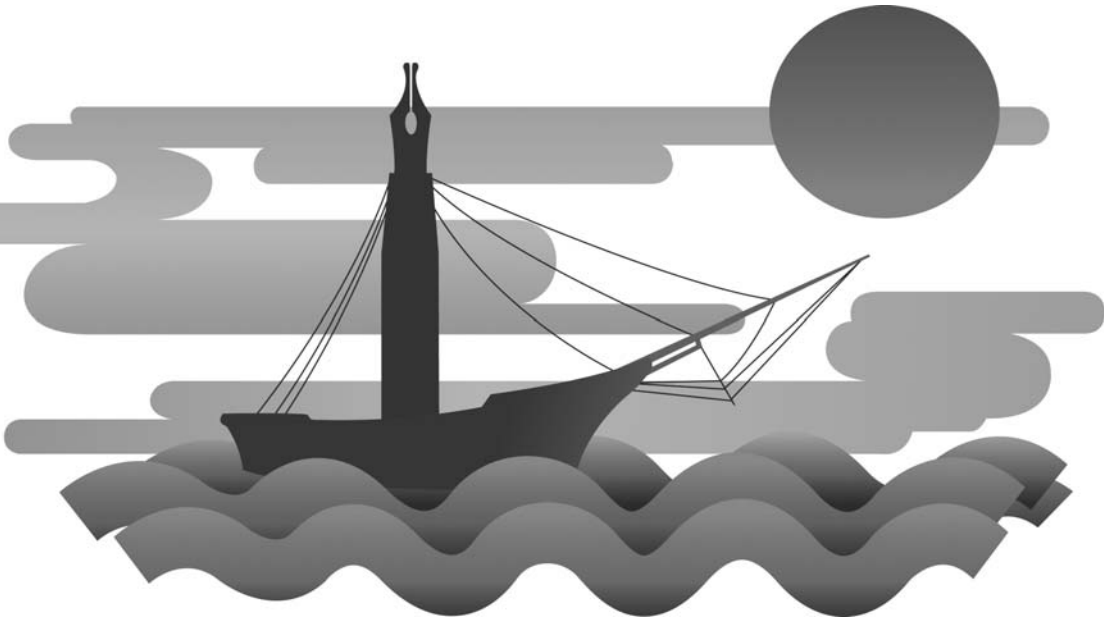
출품했다. 유 교수는 한국천아트예술협회 회원전과 개인전을 다수 전시한바 있다. 코리아 국제아트 페스티벌과 국제아트 교류전, 고양국제아트페어에도 참여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사회교육협회 천아트 부문 명장이다. 행주미술대전 초대작가, 김해 미협 추천작가, 화무회 회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유서영 교수는 이번 2024년 회원전을 열면서 남다른 감회를 피력했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10월에 우리는 날마다 멋진 날이 되고자 하여 광복에 꽃을 입히는 작품전을 열었다'고 했다. '찬란하게 빛나는 가을의 소중한 시간 속에서 하늘빛 고운 그림과 상쾌한 칼바람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고도 밝혔다. 제2회 전주 천아트 꽃이야기 회원전을 계기로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제2차 신한국포럼의 의미

세계 평화연합(UPF-Universal Peace Federation)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왜 남북 핵 균형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제26차 신한국포럼'을 지난 8월 백범 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이미 실현 불가능한 목표로 전락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통해 한반도에서 현상 타파를 추구하고 있다. 남한 영토 '평정'까지 준비하는 상황이다. 주한미군 감축과 미국의 확장 억제 약화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다. 한국이 자체 핵 억제력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의 오판에 의한 핵사용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핵무장 시도로 인해 발생할 국제 관계와 국내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차원의 부정적 요소들이 많다.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핵무장은

보다는 평화를 위한 초당적 차원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핵문제는 한반도 평화라는 궁극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한편 UPF는 UN 경제사회이사회 '포괄적 협의지위'를 가진 글로벌 NGO이다. 국내에는 15개 광역시도 및 232개 시군구에 지부를 두고 있다. UPF는 2021년부터 시작한 신한국포럼을 격월로 실시하고 있다. 사회 명사들을 초청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사회 통합과 국가발전, 평화세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고 있다. 민족 분단의 현실을 타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다가올 그 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남북 관계가 경색된 현재 상황일수록 UPF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운동에 의식 있는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